

농촌진흥청, 가축분뇨 액비 활용 확대 현장 소통 나서

-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 13일 충북 청주 액비화시설·유가공 낙농가 방문
 - 경종 농가·자원화시설 관계자 만나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숙성치즈 생산 기반 구축 및 특허 유산균 활용 신제품 개발 점검
- ※2026. 5. 13.(수) 13:30~16:30, 충청북도 청주시 액비자원화시설, 액비 살포 현장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5월 13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 액비자원화시설과 액비 살포 현장을 방문해 가축분뇨 액비 활용 실태를 점검했다.

조 원장은 액비화시설 운영 현황과 액비 생산 과정을 살펴본 뒤 액비 살포 작업을 참관했다. 또한, 액비 사용 경종 농가와 간담회를 갖고 액비 품질과 활용 효과, 사용 과정 중 어려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자원화시설 운영자, 농촌진흥청 액비 활용 전담팀(TF) 관계자 등과 토론회를 열고, 액비 생산·유통·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유하며 액비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 원장은 “가축분뇨 액비는 농업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대표적인 순환형 자원”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가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액비 활용 기술을 지원하고 현장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축산과학원은 기술자료를 보급해 액비 품질 향상과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기술 지원과 액비 활용 전담팀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원장은 이날 액비자원화시설 방문에 앞서 청주시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 낙농가 청원자연랜드를 방문해 고품질 목장형 유제품 생산 확대 시범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청원자연랜드는 지난해 국립축산과학원 ‘고품질 목장형 유제품 생산 확대’ 시범 사업에 참여해 숙성치즈 생산 기반을 갖추고, 까망베르 치즈와 고다 치즈를 생산하고 있다.

이날 조 원장은 국내산 우유를 활용한 유제품 생산 현장과 유가공 시설·체험장을 둘러보며, 원유 생산부터 유제품 가공과 체험, 판매로 이어지는 농촌융복합산업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조 원장은 “최근 낙농 산업은 생산비 부담 증가와 우유 소비 감소 및 유제품 수입 물량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국내산 우유를 활용한 차별화된 유제품 생산과 체험 연계 모형은 목장형 유가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격려했다.

붙임. 가축분뇨 액비 활용 현장 및 유가공 낙농가 방문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스마트축산환경과	책임자	과 장	장길원 (063-238-7400)
		담당자	연구사	김종곤 (063-238-7407)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푸드테크과	책임자	과 장	강근호 (063-238-7350)
		담당자	연구사	유자연 (063-238-7366)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붙임**가축분뇨 액비 활용 현장 방문 및 유기공 낙농가 방문** 개요

- 목적 : 가축분뇨 액비 활용 현장 문제점 발굴 및 해결 방안 논의
 목장형 유제품 생산 확대 시범 사업 참여 농가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5. 13.(수) 청원자연랜드·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

 주요 내용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 시설 및 살포 현장 견학
 - * 가축분뇨 액비화 시설 및 액비 살포 현장 견학
- 현장 문제점 해결 방안 논의(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 사무실)
 - * 가축분뇨 액비 생산 및 살포시 애로사항, 활용 효과 청취, 액비 활용 확대 관련 해결 방안 논의
- 고품질 목장형 유제품 생산 확대 시범 농가 간담회
 - * 시범 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세부 일정(안)

일자	시간	내용	비고	
5월13일 (수)	12:10~12:50	40	○ 고품질 목장형 유제품 생산 확대 시범 농가 간담회 - 시범 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	
	12:50~13:30	40	○ 이 동 (청원자연랜드 → 자원화시설)	
	14:00~15:00	60	○ 살포 현장 견학 및 경종농가 간담회	
	15:00~15:20	20	○ 이동(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 사무실)	
	15:20~16:30	70	○ (토론회) 현장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 사무실)	